

2020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 | |
|------|--|
| 성 명 | |
| 전 형 | |
| 수험번호 | |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5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벤담이 생각한 ‘원형감시시설(판옵티콘, Panopticon)’은, 주위에는 원형의 건물, 중심에는 탑을 배치하고, 탑에 주위의 건물을 볼 수 있는 커다란 창을 몇 개 붙이는 것이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으로 구분되며, 독방에는 창이 둘 있다. 창 하나는 탑의 창에 대응하는 위치에 내부를 향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외부로 향하게 하여 빛이 독방을 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의 탑에 감시자를 한명 배치하고 독방에는 죄수를 한사람씩 유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탑에서 보면, 역광선의 효과로 독방 내에 있는 죄수의 그림자가 빛 속에 떠오르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에서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으로 인해 토굴로 만든 감옥의 어둠보다도 훌륭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다. 이제는 가시성이 하나의 올가미가 된 것이다.

벤담은 감시자가 탑에 있는지 없는지를 죄수가 인식하기 어렵도록 감시탑 내부를 설계했다. 감시탑 내부는 항상 어두워서 감시자를 볼 수 없었고 심지어 감시자가 자신을 감시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이 구조에서는 감시탑에 있는 최소한의 감시자가 주위에 있는 여러 죄수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죄수는 감시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시자의 시선과 관계없이 감시의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죄수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시선을 의식해서 규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못하다가 점차 이 감시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수의 죄수가 밀집하여 무리지어 소동을 일으키는 상태를 피할 수 있다. 각자는 독방에 유폐되어 있고 감시자에게 정면으로 보여지며, 독방의 측면 벽으로 인해서 다른 죄수와 접촉할 수 없다. 죄수는 보여지기는 하여도 볼 수가 없고, 어떤 정보를 위한 객체이기는 해도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감시자의 입장에서는 군중 대신 구분된 개개인이므로 규제하기 쉬운 형태가 되고, 죄수의 관점에서는 격리되고 관찰되는 고립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재구성

(나)

정보 기술이 진화하면서 감시는 고정된 물리적 공간에서 전자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학교나 군대, 감옥처럼 특정한 공간에서만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감시가 가능하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나 이메일, 댓글, 메신저 대화, 트윗 혹은 내려 받은 사진이나 음악 등 인터넷 상의 행적은 수집되어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고, 원한다면 언제든지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자료가 된다.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은 상품에 대한 지출 액수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신상 정보와 취향, 소비 행태, 의식까지를 파악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한 활동들이 정보로 축적되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미리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 매체는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역감시(시놉티콘, synopticon)’가 가능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언론이 시놉



티콘을 가능하게 했다면,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대중이 권력을 감시하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를 고발하거나 비판적인 사회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한편, 정보 사회에서 감시는 국가 권력이나 기업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개인 간 감시 현상 또한 심화되고 있다. 누군가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SNS에 올리면, 얼마 되지 않아 영상 속 인물에 대한 ‘신상 털기’가 이루어진다. 개인 신상 정보의 폭로를 뜻하는 ‘신상 털기’는,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서 보통 사람 누구나 다른 누군가의 사생활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야흐로 만인(萬人)이 서로를 감시하는 ‘전자감시사회’가 된 것이다.

(다)

그들은 <서정시>라는 파일 속에 그를 가두었다
서정시마저 불온한 것으로 믿으려 했기에

파일에는 가령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머리카락 한줌
손톱 몇조각
한쪽 귀통이가 해진 손수건
체크무늬 재킷 한벌
남은 가죽 가방과 몇권의 책
스푼과 포크
고치다 만 원고 뭉치
은테 안경과 초록색 안경집
침묵 한병
숲에서 주워온 나뭇잎 몇개

붕대에 남은 채취는 유리병에 밀봉되고
그를 이루던 모든 것이 <서정시> 속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의 서정시들과 함께

그들은 이런 것조차 기록해두었을 것이다

화단에 심은 알뿌리가 무엇인지
다른 나라에서 온 편지가 몇통인지
숲에서 지빠귀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옷자락에 잠든 나방 한마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하루에 물을 몇통이나 길었는지



재스민차를 누구와 마셨는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대출받았는지
강의시간에 학생들과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저물 무렵 오솔길을 걸다가 왜 걸음을 멈추었는지
국경을 넘으며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이 사랑의 나날 중에 대체 무엇이 불온하단 말인가

(후략)

- 나희덕, 「파일명 서정시」*

* Deckname <Lyrik>. 구동독 정보국이 시인 라이너 쿤쩌에 대해 수집한 자료집.

[문제 1-1]

(가)와 (나)는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감시의 형태에 대해서 쓴 글이다. (가)와 (나)의 감시의 특징의 차이점을 모두 찾아 대비하여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다)에 나타나는 감시를 (가)와 (나)의 감시의 특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전자감시사회의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독립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대통령제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행정부의 각 부처는 대통령에게 소속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행정을 수행한다. 행정부의 각료들은 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의회가 행정부 구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못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게만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회는 대통령과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기관은 서로 독립적이고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이 융합된 정부 형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내각(행정부)의 수상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권한을 가진다.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입법부에 의해 구성된다. 즉,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수상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해 의회에 책임을 진다. 의회는 내각에 대해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내각은 실각하게 된다. 반면 내각은 의회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처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자신의 생존을 상대에게 의지하는 의원내각제에서는 이들이 독립적으로 서로를 견제하기 어렵다.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중 한쪽의 권한이 더 강할 경우, 권한이 강한 기관이 권한이 약한 기관을 지배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 지도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 『고등학교 법과 정치』 재구성 -

(나)

체벨리스(Tsebelis) 교수에 의하면, 거부권 행사자란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해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다. 예컨대,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대통령), 사법부 중 어떤 한 기관이 반대하면 기존 법을 바꿀 수 없다. 견제와 균형이 핵심인 대통령제에서는 이들 거부권 행사자가 서로 견제하여 권력 집중을 방지한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마련된 거부권 행사자들을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라고 부른다.

대통령제에 반해, 의원내각제는 이러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없다. 의원내각제는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양당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이 행정부(내각)를 구성하고,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회가 찬반을 결정한다. 행정부는 다수당 지도부로 구성되므로, 행정부 법안은 의회의 견제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 지도부로 구성된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독립적인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로 작동하기 어렵다.

의원내각제의 권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통해 다당제를 창출하고, 여러 정당이 연합정부를 형성해 다수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정부에 참여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들을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라고 부른다. 의원내각제가 마치 권력분산형 제도처럼 잘못 인식되는 이유는 의원내각제가 권력분산형 정부형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의원내각제 국가가 다당제를 채택하여 다수의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형태는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많다. 정당체제는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 양당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유일한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이다. 다당제에서는 연합정부를 구성한 여러 정당들이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들이다.

그러나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다수 여당과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으면, 의회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유일한 거부권 행사자이다. 이럴 경우, 양당 대통령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적인 미국의 순수한 대통령제보다는 양당 의원내각제와 더 유사하다. 이처럼 권력구조의 이름이 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권력분산의 핵심은 거부권행사자의 수다.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 또는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의 수를 증가시키면 권력은 분산된다.

[문제 2-1]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입법부 관계의 차이가 권력 집중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가)를 통해 설명하시오.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의 권력 분산방식을 (나)의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와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2]

- 양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문제를 의원내각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나)의 내용을 통해 평가하고,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원내각제와 순수한 대통령제 중 어떤 정부형태가 더 적합한가를 설명하시오.
- 정부형태와 정당체제가 어떻게 조합될 경우 권력 집중을 가장 약화시킬 수 있는가를 (나)의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 및 “정파적 거부권 행사자”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